

# 《論語》에서의 군자의 인격 경계

李俊熙\*

---

◁ 목 차 ▷

---

- I. 들어가는 말
  - II. 군자의 인격 경계
    - 1. 仁者不憂
    - 2. 知者不惑
    - 3. 勇者不懼
  - III. 나오는 말
- 

## I. 들어가는 말

君子란, 공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인간이 이르고자 하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나 경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君子는 보통 사람들이 학문과 수양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간형이다. 그로부터 2,000여 년간 君子라는 말은 줄곧 志士와 仁人들의 인격수양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君子라는 말은 공자 이전의 《周易》, 《詩經》, 《尚書》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등장한다. 君子는 처음에는 귀족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명칭으로 士 이하의 庶民 백성에 대한 ‘小人’과 대칭을 이룬다. 그 후에 君子는 점점 신분지위상의 개념에서 도덕품성의 함양으로 변화하여 개인 품격의 높고 낮음을 대표하는 명사가 되었다.<sup>1)</sup>

공자에 이르러서 君子라는 말이 일종의 이상적인 인격체로써 제시되었다. 공자는 君子라는 개념 자체를 달리하여 지배계급을 지칭하던 용어를 인격자라는 의미로 전

---

\* 경주대학교 관광중국어학과 부교수

1) 君子라는 말은 《論語》 이전의 典籍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난다. 예를 들면 《周易》에 19번, 《詩經》에 184번, 《尚書》에 4번 나타난다. 金秉旭 <《論語》與《孟子》之君子概念研究> (《國際中國學研究》 제8집, 2005. 12.), 511-527쪽 참조.

환시킴으로써 배움을 닦는 모든 이는 君子가 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인간론을 주장하였다.<sup>2)</sup> 《論語》 전편에서 君子라는 말은 모두 85곳에 걸쳐 107차례 나타난다. 이 가운데 격언 등을 인용하여 사회적 신분을 나타낸 9차례의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도덕적 인격을 가리키고 있다. 이때 人格의 한자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품격이나 자격을 나타내는 말이며, 그래서 윤리적 맥락에서 도덕적 인격은 특별히 ‘德’을 행하는 ‘사람다움(사람의 본질)’을 뜻하기도 한다.<sup>3)</sup> 이경무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君子의 의미를, 첫째, 개인의 인격완성이나 자아실현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한 실천과 수양에 힘쓰는 사람, 둘째, 자신의 인격 완성으로부터 나아가 조화로운 인간관계 및 공동체의 건강성을 실현 또는 증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자세와 태도를 확립하는 사람, 셋째, 우주자연에 대한 체득을 지향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조화를 추구하면서, 인간과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구분한 바 있다.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궁극적으로 聖人이다. 이러한 聖人の 경지는 너무나 완벽하고 지고해서 현실의 일반적인 인간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공자는 聖人을 최고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꼽고 있지만, 실제로 《論語》 중에 聖人の 용례는 몇 차례 나오지 않는다. 聖人이란 단어는 겨우 4회에 불과한 반면에, 君子란 개념은 총 107번 등장한다. 물론 여기에서 堯舜이나 文王, 周公 등을 일컫는 내용 까지를 聖人の 범주에 넣어서 헤아려 볼 수 있지만, 그래도 君子라는 단어가 훨씬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君子라는 인격은 지고무상한 聖人에 비해 한 단계 낮다고 말할 수 있다.

君子는 聖人보다 못하지만, 小人과는 반대되는 인격체이다.君子는 덕성과 학식을 갖춘 유가의 현실적인 인간상이다. 공자가 궁극적 목표로 삼은 것은 聖人이지만, 제자들이 공자 자신을 聖人으로 보는 것에 대해 부정할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지고무상한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공자가 실제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君子의 인격이었다.君子는 학문을 통해 학식을 쌓고 자신의 덕성과 인격을 도야한다. 《論語》에서君子는 智·仁·勇의 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고, 이외에도 禮·孫·信 등의 덕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君子를 표현하고 있다.<sup>4)</sup>

2) 김승혜 《유교의 뿌리를 찾아서》, 지식의 풍경, 2001. 98쪽.

3) 이경무 〈君子와 공자의 이상적 인간상〉(《동서철학연구》 제54호, 2009. 12), 105쪽.

공자 시대에 비록 아직 '精神境界'의 주장은 없었지만, 사실상 공자는 이미 일련의 체계적인 정신경계에 관한 사상을 형성하였다. 공자의 정신경계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人格境界에 따라 사람을 세 유형 즉 小人, 君子, 聖人으로 나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범주에 따라서 위의 세 유형의 인격을 각각 智者, 勇者, 仁者 세 종류로 나누었다. 이는 「君자의 도가 셋 있는데, 나는 그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仁者는 근심하지 않고, 知者는 미혹하지 않고, 勇者는 두려워하지 않는다.(君子道者三, 我無能焉. 仁者不憂, 知者不惑, 勇者不懼.)」<sup>5)</sup>에 근거한 것이다. 智者는 지식과 재능에 대해서, 勇者는 의지와 의향에 있어서, 仁者는 정감과 정서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현대심리학의 '知·情·意'의 범주와 일일이 대응된다. '小人'을 제외하고는, 君子던 聖인이던간에 智者·勇者·仁者에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一以貫之하는 '仁'이다. 그러나 이三者와 '仁'의 관계에는 또한 심리차원에서의 차이점이 있다. 智者는 달리 '知之者'로 불리며 仁을 알고 仁을 구한다(知仁而求仁); 勇者는 달리 '好之者'로 불리며 仁을 좋아하고 仁을 행한다(好仁而行仁); 仁者는 달리 '樂之者'로 불리며 仁을 즐기고 仁에 안주한다(樂仁而安仁). 「이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만 못한다.(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sup>6)</sup>에 의하면, 이 세 가지의 경계가 다름, 즉 '智者不如勇者(知不如勇), 勇者不如仁者(意不如情)'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여 공자는 실제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9종의 정신경계를 구분 지었는데, 小人之智者(小智), 小人之勇者(小勇), 小人之仁者(小仁); 君子之智者(大智), 君子之勇者(大勇), 君子之仁者(大仁); 聖人之智者(聖智), 聖人之勇者(聖勇), 聖人之仁者(聖德)로 나눌 수 있다.<sup>7)</sup>

본문에서는 상술한 9종의 정신경계 중에서 君자의 인격 경계를 「仁者不憂, 知者不惑, 勇者不懼」 3종을 통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바로 공자가 정의한 君자의 인격 경계에 대해 가장 생동감 있고, 형상적이며, 또한 전체적인 표현이라고

4) 공자는 君자의 인격 경계를 바라보기만 할 뿐 도달할 수 없는 「聖人」의 바로 다음 단계에 두었다. 「聖人을 내 만나볼 수 없으니, 君子라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聖人, 吾不得而見之矣, 得見君子者, 斯可矣.))」《論語·述而》

5) 《論語·憲問》

6) 《論語·雍也》

7) 黃玉順 〈孔子之精神境界論〉(《孔子研究》, 2002년 제4기, 4-13쪽 참조.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中庸》에서 말한 「智仁勇, 三達德」<sup>8)</sup>으로 공자가 추구한 君子 인격의 이상적인 경계이다.

## II. 군자의 인격 경계

### 1. 仁者不憂

仁은 바로 君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덕목인 동시에 다른 여러 덕을 내포하고 있는 총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君子의 모습은 이러한 仁을 바탕으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仁은 근본적으로 혈육의 인륜 관계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또는 국가적 인간관계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仁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다운 인간 즉, 君子가 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녀야 하는 최고의 덕이다.<sup>9)</sup>

공자가 추구한 君子는 윤리적 행위의 주체로서 개인이 자기 자신과 사회 및 국가 공동체 그리고 천지자연의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道와 德, 義와 禮 등을 실천하고 이로써 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도덕적 인격완성을 위한 君子의 수양과 실천은 聖인과 마찬가지로 仁의 실현에 그 핵심이 있다.<sup>10)</sup> 君子는 당연히 仁의 실천자로서의 ‘仁者愛人’의 정조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다.

「君子가 仁을 버리고서 어찌 이름을 이루겠는가. 君子는 밥 한 끼 먹는 동안에도 仁을 멀리 하지 아니 하고, 아차 넘어지는 순간에도 仁과 함께 해야 한다.(君子去仁, 惡乎成名?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sup>11)</sup>

8) 「지, 인, 용, 이 세 가지는 천하의 달덕이니,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이다.(智仁勇三者, 天下之達德也 所以行之者 一也.)」《中庸章句 第20章》

9) 박용조, 〈사제의 이상적 인간상으로서 《論語》의 君子〉(《가톨릭사상》 제24호, 2001. 여름), 283-318쪽.

10) 이경무, 〈君子(君子)와 공자의 이상적 인간상〉, 116쪽.

11) 《論語·里仁》

이 말은 君子는 우선 仁의 실천자로서 '仁人'이 되어야 하며, 仁을 포기한다면 君子는 더 이상 君子가 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仁이 바로 공자의 철학사상이며, 이 철학사상을 도덕적 영역에 반영한 것이 바로 仁者愛人 정신이다. 이러한 仁의 속성을 「사람을 사랑함(愛人)」<sup>12)</sup>이라 하여 관념적인 인식의 대상이 아닌 실천적이며 도덕적인 행위이며, 그 실천방법은 자기를 비추어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서고 싶으면 먼저 남을 내세워주고 자신이 도달하고자 할 때에는 남을 먼저 도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sup>13)</sup> 또한 「내가 싫어하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sup>14)</sup>는 말은 바로 仁者愛人 정신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그래서 공자는 仁者愛人 정신이야말로 君子가 갖추어야 하는 덕목임을 강조했다. 공자는 항상 「君子는 도를 배우고 남을 사랑하기를(君子學道則愛人)」 강조했다며, 제자들이 「仁에 뜻을 두고(志於仁)」 「仁에 따르기(依於仁)」를 원했으며, 특히 仁者は 「삶을 구하기 위해서 仁을 해치지 않으며, 자신을 희생하여 仁을 이룰 것을(志士仁人, 無求生而害仁, 有殺身而成仁.)」<sup>15)</sup> 주장했다.

그래서 공자는 君子의 행위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君子는 은혜로우면서 낭비하지 않고, 힘든 일을 시키면서 원망을 사지 않고, 원하기는 하나 탐내지 않고, 태연하나 교만하지 않고, 위엄이 있으나 사납지 않다.(君子惠而不費, 勞而不怨, 欲而不貪, 泰而不驕, 威而不猛.)」<sup>16)</sup>

「君子는 남의 좋은 일을 이루게 하고, 남의 그릇된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君子成人之美, 不成人之惡.)」<sup>17)</sup>

「君子는 어진 사람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며, 착한 사람을 칭찬하고 재주 없는 사람도 불쌍하게 여긴다.(君子尊賢而容衆, 嘉善而矜不能.)」<sup>18)</sup>

12) 樊遲問仁. 子曰 愛人. 《論語·顏淵》

13) 《論語·雍也》

14) 《論語·顏淵》

15) 《論語·衛靈公》

16) 《論語·堯曰》

17) 《論語·顏淵》

게다가 제자들에게 「너는 君子다운 선비가 되어야지, 小人적인 선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女爲君子儒, 無爲小人儒.)」<sup>19)</sup>고 요구했다. 즉 君子儒와 小人儒의 구별은 바로 仁者인지 아닌지, 仁者愛人의 정신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공자의 생각에는 君子는 마땅히 仁者여야 하며 仁者愛人의 정조를 구비해야 하는데, 이는 君子의 필요조건으로서 진정한 君子가 되려면 자신의 수양을 강화하며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君子는 자기를 수양하여 성실히 하는 것이며, 자기를 수양하여 남을 편안히 하는 것이며, 자기를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이다.<sup>20)</sup> 君子는 '修己'를 통해서 '敬'에 이를 수 있고, '安人'할 수 있으며, 최종목표는 '安百姓'을 위한 것으로, 즉 널리 백성을 안정시켜야 진정한 君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자는 「君子는 자신에게서 구하며, 남에게서 구하지 않음(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을 강조했다.<sup>21)</sup> 즉, 君子는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해야 하며,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小人'이라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고 있는 君子는 아직 도덕적 인격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미 완성된 인격을 이루고 있는 聖인과 구별되기도 하지만, 인격 완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에 있어서는 聖인과 어떤 차이도 없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이러한 사상에 기초하여, 공자는 君子가 생활 가운데서 마땅히 '三戒'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君子가 경계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으니,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잡히지 않았으므로 색을 경계해야 하고, 장년에는 혈기가 바야흐로 왕성하므로 싸움을 경계해야 하고, 노년에는 혈기가 이미 쇠잔했으니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君子有三戒.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及其老也, 血氣既衰, 戒之在得.)」<sup>23)</sup>

18) 《論語·子張》

19) 《論語·雍也》

20)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曰: 「如斯而已乎?」曰: 「修己以安百姓。」曰: 「如斯而已乎?」曰: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論語·憲問》

21) 《論語·衛靈公》

22) 이경무, 〈君子(君子)와 공자의 이상적 인간상〉, 115쪽.

23) 《論語·季氏》

아울러 君子가 처세하는데 있어서 '九思'가 있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君子는 아홉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보는 데는 맑기를 생각하고, 듣는 데는 충명하기를 생각하고, 용모에는 온화하기를 생각하고, 태도에는 공손하기를 생각하고, 말에는 충실하기를 생각하고, 일에는 성실하기를 생각하고, 의심나는 것에는 묻기를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君子有九思: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sup>24)</sup>

다시 말해서, 君子는 일상생활 가운데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엄격하고 항상 스스로를 반성해야만 비로소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不憂不懼)」의 정신적인 경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이상적인 인격에 대한 이미지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윤리도덕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공자가 설정한 교육의 목표는 모두가 君子 인격의 양성이라는 목표에 맞추어져 있다. 이 목표를 중심으로 공자는 周禮를 이론근거로 삼아 君子에 대해 완전한 도덕규범 체계를 제시하여 君子를 덕육의 목표로 삼았으며, 仁을 핵심으로 하고 禮를 준칙으로 하며 충효를 기초로 하고 信義智勇을 보충으로 하는 사상체계를 제시하였다.<sup>25)</sup>

## 2. 知者不惑

공자는 知에 대해 여러 가지를 주장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이다.<sup>26)</sup> 여기에서 공자가 말한 知란 스스로를 문제 삼는 자아의식에 입각하여, 선택할 것과 거절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해서 自我의 행동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목표에 부합하는 것을 택하고

24) 《論語·季氏》

25) 楊曉君, 《略論孔子君子人格思想》, 大連海事大學學報(사회과학판), 제7권 제1기, 2008. 2, 98-101쪽.

26) 《論語·爲政》

그렇지 않은 것을 거절하는 것, 즉 행위의 목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선택 평가의 知이다.<sup>27)</sup> 그래서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자는 君子는 마땅히 박학다식한 학문과 實事求是하는 엄격한 학풍을 갖추어야 하여, 널리 배우고 자신을 禮로써 절제할 것을 요구했다.<sup>28)</sup> 공자는 왜 君子가 박학다식한 학문을 갖출 것을 요구한 것일까? 이것은 그가 '君子不器', 즉 君子는 일반적인 그릇처럼 단지 한 가지의 용도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君子는 당연히 '大器'가 되어서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학문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君子가 '不器'가 되고 '大器'가 되려면, 반드시 학문에 힘써야 하며, 그래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던 것이다.

「君子는 음식을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아니하고, 거처함에 있어서 편안함을 구하지 아니하며, 일에는 민첩하고 말을 함에 있어서 삼가하며, 학덕이 풍부한 이를 가까이하여 자신을 바로잡으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할 만 하다.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于事而慎于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sup>29)</sup>

다시 말하면, 君子는 학습하는데 있어서 편안함을 탐해서는 안 되며, 각고근면하고 노력하는 정신을 갖추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해서는 아니되며(無友不如己者)」 「학문으로 벗을 사귄지며(以文會友)」, 「덕이 있는 자를 가까이 하여 자신을 바로 잡아야만(就有道而正焉)」 비로소 박학한 지식을 갖추어 '大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자가 君子의 학문을 중시한 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것은 바로 君子는 '文質彬彬'해야 하며, 심후한 문화적인 깊이와 우아한 정신적인 기질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공자는 「바탕이 文采보다 두드러지면 질박하고, 문체가 바탕보다 두드러지면 진솔하지 못하니, 문체와 바탕이 잘 어울려야 君子(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sup>30)</sup>라고 주창했다. 여기에서

27) 박용조, 〈사제의 이상적 인간상으로서 《論語》의 君子〉(《가톨릭사상》 제24호, 2001. 여름.), 296-297쪽.

28) 博學於文, 約之以禮. 《論語·雍也》

29) 《論語·學而》

30) 《論語·學而》

‘文’과 ‘質’은 사람의 內在와 外延의 품질이다. 소위 ‘文’은 문채로서 일종의 문화적인 품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박학다식한 지식과 풍부한 학문은 이러한 품성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質’이라고 하는 것은 질박한 것으로, 일종의 순박한 품질이다. 공자는, 君子가 되려면 반드시 이 두 종류의 품질을 적당히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순박한 품질에다 문화적 수양을 강화하지 않으면 ‘文采’가 결여되어 粗野해지기 쉬우며, 문화적인 품질만 있고 「예로써 절제(約之以禮)」하지 않으면 순박함을 잃어버리고 경박해진다. 그래서 君子는 ‘文’과 ‘質’이 적당히 조화됨으로써 순박함을 잃지 않고 심후한 문화적인 깊이의 우아한 기질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sup>31)</sup>

공자는 君子는 박학다식한 학문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엄격한 실사구시의 학풍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박학다식한 학문과 엄격한 실사구시의 학풍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만약 엄격한 실사구시의 학풍이 없다면 박학다식한 학문을 갖추기란 매우 어렵다. 설령 박학다식한 학문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실사구시의 학풍이 없다면 역시 높은 성취를 이루기 어려우며 진정한 君子가 되기 어렵다. 그리하여 공자는 「君子는 모르는 일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법이다.……그러므로 君子는 명분을 바로하면 반드시 말이 서고, 말이 서면 반드시 실행하게 될 것이니 君子는 그 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경솔함이 없어야 한다.(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也……故君子名之, 必可言也, 言之, 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sup>32)</sup>고 강조했다. 이것은 바로 君子는 그가 모르는 것에 대하여 보류하는 태도를 취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고 해야 하며, 절대로 아무렇게나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공자의 생각에는 君子는 우선 본질적으로 의로움을 기본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仁義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君子의 내면의 수양에 속한다. 다음이 禮이다. 공자는 「사람이 어질지 아니하면 禮는 무엇할 것인가?(人而不仁, 如禮何.)」<sup>33)</sup>이라 하여 禮는 인간 본심의 성정이 외부에 나타난 것으로 경건한 마음가짐이 있음

31) 徐柏青 〈君子-孔子對理想人格的追求〉, 《贛南師範學院學報》, 2001년 제5기, 63-66쪽.

32) 《論語·子路》

33) 《論語·八佾》

으로써 정중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sup>34)</sup> 이는 행동을 禮에 따라 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다음은 겸손이다. 말을 표현함에 있어서 겸손하고 공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의와 정성을 다해야 믿음을 얻을 수 있다. 군자는 「의를 바탕으로 삼고 예에 따라 행하고 공손한 태도로 남 앞에 나타나고 신의로 성사시킨다.(君子義以爲質. 禮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sup>35)</sup> 이렇게 함으로써 내재적인 본질과 외재적인 표현이 결합하여 행위가 단정하고 완전한 君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겸허하고 사양하는 마음은 공자의 君子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이는 子貢이 스승인 공자에 대해 「온화하고 선량하고 공손하고 검소하고 겸양한 다섯 가지 덕을 갖춘 인격(子貢曰夫子溫良恭儉讓以得之)」<sup>36)</sup>이라고 평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면서 君子의 대인관계 처세에 있어서 너그럽고 배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시 말하면, 君子는 知者여야 하며, 박학다식한 학문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엄격한 실사구시의 학풍을 갖추어야 하며, 겸허하고 사양하는 태도를 구비해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君子는 비로소 '知者不惑'에 이르러 君子의 인격 경계에 들 수가 있는 것이다.

### 3. 勇者不懼

君子에게 勇德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君子는 당연히 義를 숭상하고 실천을 중시하는 용기와 굳건하고 진취적인 의지력을 갖추어야 한다. 용감하다는 것은 君子 인격의 기본적인 요구조건이라고 공자는 생각했다. 그리하여 공자는 '君子之勇'을 매우 중시했다. 《論語》에서 공자의 제자 子路가 공자에게 「君子는 용맹을 숭상합니까?(君子尙勇乎)」라고 묻자, 「君子는 정의를 숭상한다. 君子가 용맹하면서 정의를 무시하면 난동을 부리고, 小人이 용맹하면서 정의를 무시하면 도둑질을 한다.(君子義以爲上, 君子有勇而無義爲亂. 小人有勇而無義爲盜.)」<sup>37)</sup>고 공자가 대답했다. 공자는 여기에서 비록 '義'를 강조했지만, 동시에 '勇'

34) 金錫源 《論語》(서울, 혜원출판사, 1996), 55쪽 참조.

35) 《論語·衛靈公》

36) 《論語·學而》

37) 《論語·陽貨》

을 긍정했다. 다만 君子는 ‘勇’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義’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더욱이 ‘義’가 으뜸이며, ‘義’로써 ‘勇’을 절제함으로써 ‘君子之勇’이 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옳은 일임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見義不爲, 無勇也)」이라 했던 것이다.

공자의 제자 曾參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린 고아를 맡길 수 있고, 나라의 명운을 맡길 수 있으며, 생사존망에 임해서도 그 뜻을 꺾을 수 없다면, 이러한 사람은 君子인가?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君子이다!(可以托六尺之孤,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sup>38)</sup>

이는 실제로 ‘君子之勇’을 말한 것으로, 曾參이 스승인 공자의 사상에 대해 정확히 해석한 것이라 여겨진다. ‘君子之勇’은 仁義禮智로 그 규범을 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 ‘小人之勇’ ‘匹夫之勇’이 되고 만다. 용맹하면서 어질지 못한 것이 바로 ‘小人之勇’이다.

《論語》 가운데 ‘君子之勇’에 대한 서술이 많지는 않지만, 비교적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는데 두 가지 방면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는 용감히 실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굳건히 나아가는 것이다. 공자는 「君자의 道를 실천하는(躬行君子)」<sup>39)</sup> 것을 매우 중시했으며, 게다가 君子는 勇猛精進 하듯이 지속적으로 용감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君子는 천하의 모든 일에 꼭 주장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으며 오직 의를 좇는다.(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sup>40)</sup>

君子가 천하의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따라 그렇게 할 뿐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공자는 君子는 먼저 실천하고 난 후에 말을 하고, 말은

38) 《論語·泰伯》

39) 《論語·述而》

40) 《論語·里仁》

어늘해도 행동은 민첩하기를 요구했던 것이다.<sup>41)</sup>

子貢이 공자에게 어떻게 해야 君子가 될 수 있는지 가르침을 청했다. 「먼저 그 말을 행하고, 후에 말을 한다.(先行其言, 而後從之.)」<sup>42)</sup> 진정한 군자는 말에 앞서 먼저 행동으로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여야 한다. 이 역시 말에 앞서 먼저 실행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君子가 행하는 것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며,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실행의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심지어 실패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질책과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공자는 君子는 잘못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 말 것이며, 좌절과 실패를 두려워 말 것이며, 너그러운 가슴으로 용감히 전진하는 의지력을 가지라고 요구했다.

「君子의 마음은 평탄하고 너그로우며, 小人의 마음은 항상 근심에 차 있다.(君子坦蕩蕩, 小人長戚戚.)」<sup>43)</sup>

「君子가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없으니 배워도 견고하지 못하다. 충성과 신의를 주로 할 것이며, 나만 못한 사람과 벗하지 말 것이며,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말 것이다.(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sup>44)</sup>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君子가 君子인 까닭은 평탄하고 너그러운 흥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잘못을 기꺼이 바로잡는데 있으며, 과감히 진취적인 의지력을 갖추고 있는데 있고, 좌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체의 어려움과 장애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왕성하고도 생기발랄한 생명력을 영원히 유지하는데 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不捨晝夜) 용감히 실행하고 전진하는 것이야말로 君子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공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인격은, 바로 君子의 인격이며, 그것을 개

41) 「君子는 그 말이 행동을 초과하는 것을 수치스러워 한다.(君子恥其言而過其行)」《論語·憲問》; 「君子는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해야 한다.(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論語·里仁》

42) 《論語·爲政》

43) 《論語·述而》

44) 《論語·學而》

팔하면 바로 仁愛無私의 정조이며, 律己寬人의 정신이며, 총명예지의 사상이며, 박학다식한 학문이며, 다재다능한 능력, 淳朴儒雅한 기질, 엄격한 실사구시의 풍격, 겸허하고 공손하며 양보하는 태도, 용감하고 두려워않는 성격, 견고한 의지이다. 그것은 사상, 정감, 정신, 기질, 능력, 지혜, 성격, 의지, 풍격, 태도와 가치관 등 여러 방면을 포괄하며, 그러한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구현이다.<sup>45)</sup>

공자의 君子에 대한 주장 가운데서, 君子에 대해 언제나 크게 찬미하고 무한한 존경의 감정이 충만하고, '小人'에 대해서는 크게 질책하고 혐오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論語》에서 君子는 대체로 小人과 대비되어 논해지고 있다. 《論語》에서 '君子'가 107번 나오는데 비하여 '小人'은 24번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君子'와 대비되어 쓰인 것이 18번이다.<sup>46)</sup> 아울러 제자들에게 대해서도 君子가 되기를 은근하면서도 두터운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공자가 이상적인 인격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나타낸 것이다.

공자의 風貌는 「온순하면서도 엄숙하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무섭지 않고, 공손하면서도 편안하다.(子, 溫而厲, 威而不猛, 恭而安.)」<sup>47)</sup> 덕이 있는 君子의 면모는 세 가지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멀리서 보면 엄연하여 위엄이 있고, 가까이서 보면 온화해서 친숙한 멋이 있으며, 그 말을 들으면 바르고 범하기 어려운 엄숙함이 있다.<sup>48)</sup> 이 말은 공자가 추구한 君子의 숭고한 형상의 이상적인 경계를 이르는 말이

45) 徐柏青 〈君子-孔子對理想人格的追求〉.

46) 君子周而不比, 比而不周. 《論語·爲政》: 君子懷德, 小人懷土, 君子懷刑, 小人懷惠. 《論語·里仁》: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論語·里仁》: 女爲君子儒, 無爲小人儒. 《論語·雍也》: 君子坦蕩蕩, 小人長戚戚. 《論語·述而》: 君子成人之美, 不成人之惡. 小人反是. 《論語·顏淵》: 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論語·顏淵》: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論語·子路》: 君子易事而難說也, 小人難事而易說也. 《論語·子路》: 君子泰而不驕, 小人驕而不泰. 《論語·子路》: 君子而不仁者有矣夫, 未有小人而仁者也. 《論語·憲文》: 君子上達, 小人下達. 《論語·憲文》: 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 《論語·衛靈公》: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論語·衛靈公》: 君子不可小知而可大受也, 小人不可大受而可小知也. 《論語·衛靈公》: 君子有三畏, 畏天命, 畏大人, 畏聖人之言, 小人, 不知天命而不畏也, 狎大人, 侮聖人之言. 《論語·季氏》: 君子學道則愛人, 小人學道則易使也. 《論語·陽貨》: 君子義以爲上, 君子有勇而無義爲亂, 小人

47) 《論語·述而》

48) 「군자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으니, 멀리서 바라보면 근엄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온화하며, 그 말을 들으면 엄정하다.(君子有三變, 望之儼然, 卽之也溫, 聽其言也厲.)」

다. 공자의 風貌가 곧 君子의 風貌이다. 君子에게 나타나 보이는 세 가지 변화는 바로 君子의 도덕과 학문과 수양이 이미 仁德이 혼연일체가 된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빛과 기품, 그리고 언어와 행동에서 그 수양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멀리서 바라보면 君子의 용모는 장중하고 엄숙하며, 위엄이 있으며 예가 갖추어져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숙연히 존경의 엄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눈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오히려 君子의 얼굴빛과 태도는 온화하여 친근감이 생기며, 仁愛의 정신이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君子의 말소리를 들어보면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며, 말의 내용 또한 엄정하고 정의로우며, 능름하여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개가 흘러넘친다. 「멀리서 바라보면 근엄함(望之儼然)」은 禮가 겉으로 우러난 모습이고, 「가까이 다가가면 온화함(卽之也溫)」은 仁의 표상이며, 「그 말을 들으면 엄정함(聽其言也厲)」은 義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관자의 눈에는 세 가지 변화된 모습으로 비치지만, 실제로는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모든 것을 포괄한 君子의 독특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강자이며, 仁者인 동시에 고도의 수양을 갖춘 신뢰할 수 있고 큰일을 맡길 수 있는 그야말로 君子의 형상인 것이다.<sup>49)</sup>

### Ⅲ. 나오는 말

공자는 君子의 인격 경계에 대해 「仁者不憂, 知者不惑, 勇者不懼」라고 규정하였다. 仁者不憂는, 君子란 仁者愛人의 정조와 자신을 엄격히 남에게는 관대한 정신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知者不惑은, 君子는 박학다식한 학문과 실사구시하는 학풍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勇者不懼는, 君子는 義를 숭상하고 실천을 중히 여기는 용기와 진퇴를 굳건히 견지하는 의지력을 요구한다. 仁者は 흉금이 坦蕩하고 廓然하니 근심이 없고, 知者は 辨析物理하고 是非가 분명하니 고로 미혹되지 않으며, 勇者는 見義勇爲하고 不畏強暴하니 고로 두려움이 없다.

공자의 덕육사상은 전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춘추말기에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오는(天下無道則禮樂征伐,

《論語·子張》

49) 李俊熙 《논어이야기》, 제이앤씨, 2005, 296쪽.

自諸侯出)』<sup>50)</sup> 상황이었다. 춘추시대는 예악이 붕괴되는 시대상황에서 공자는 왜 제자들에게 ‘君子儒’가 되기를 갈망했는가? 공자가 君자의 인격 경계를 제시한 것은 당시의 시대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춘추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왕조의 봉건제도는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周왕조가 전란으로 지리멸렬하고 약육강식의 사회현상은 공자에게 시대적인 역사적이고도 사회적인 책임을 통감하게 하였다.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君君臣臣父父子子)」<sup>51)</sup> 인륜의 도를 바로 세워 안정된 사회의 신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역사적 요구인 동시에 당시의 지식인들의 공동의 이상이였다. 공자가 일생동안 심혈을 기울인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轍環天下하며 제후들을 설득시켜 그의 정치사상을 실현시켜 無道를 有道로 바꾸어보려고 했으며, 다른 하나는 學을 일으켜 제자들을 모아 인재를 양성한 것이였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공자 개인의 노력으로는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건립하고자 하는 이상을 실현하기가 어려웠다.

공자는 천하의 흥망이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던 까닭에, 비록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건립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는 제삼의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건립하려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소수의 노력에 의지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수많은 君子 즉 이상적인 인격을 구비한 인재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공자는 君子를 덕육의 교학의 목표로 삼았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는 미천한 출신도 있었지만, 「가르침에는 류가 없다(君子無類)」는 설을 제창하여 공자는 이들을 명실 공히 지배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공자는 제자들이 君子 인격을 함양하여 사회를 개조하고 안정된 문명의 사회 신질서를 건설하는 인재가 되기를 염원했다. 공자의 이러한 이상적인 인격에 대한 추구는 제자들 사이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論語》 중에서 子路, 曾參, 冉有, 子夏, 子貢, 子張

50) 《論語·季氏》

51) 《論語·顏淵》. 당시의 사회현상의 단면을 《孟子》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세상이 쇠퇴하고 정도가 미약해져서 간사한 말과 포악한 행실이 다시 일어나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는 자가 있고, 자식이 제 아버지를 죽이는 자가 있었다.(世衰道微, 邪說暴行有作, 臣弑其君者有之, 子弑其父者有之.)」 《孟子·滕文公章句下 第九章》

등 많은 제자들이 공자에게 君子에 대해 질문하거나 君子를 논했다. 이는 공자의 제자들 사이에서 君子 인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기풍이 형성되었으며, 적극적으로 君子 인격의 정신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參考文獻】

- 楊伯峻《論語譯注》北京, 中華書局, 1980  
 金錫源《論語》서울, 혜원출판사, 1996  
 來可泓《論語直解》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6  
 姚式川《論語體認》上海, 學林出版社, 1999  
 李俊熙《논어이야기》서울, 제이앤씨, 2005  
 박성규 공자《論語》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H. G. 크릴 이성규 역《공자 - 인간과 신화》서울, 지식산업사, 2007.  
 郭齊勇〈孔孟儒學的人格境界論〉;《華中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제39권 제6기, 2000. 11  
 박미라〈중국 유교의 이상 인간형-聖人과 君子를 중심으로-〉;《종교와 문화》7, 2001.6  
 박용조〈사제의 이상적 인간상으로서《論語》의 君子〉;《가톨릭사상》제24호, 2001. 여름  
 徐柏青〈君子-孔子對理想人格的追求〉;《贛南師範學院學報》, 2001년 제5기  
 黃玉順〈孔子之精神境界論〉;《孔子研究》, 2002년 제4기  
 張世浩〈유가의 인간관〉;《중국학보》제52집, 2005. 12  
 金秉峒〈《論語》與《孟子》之君子概念研究〉;《國際中國學研究》제8집, 2005. 12  
 肖起清 張意柳〈“君子人格”:《論語》的與靈魂〉;《江淮論壇》2005년 제6기  
 周佳峰〈孔子的“君子”人格理論探析〉;《長春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20권 제6기, 2007. 11  
 楊曉君〈略論孔子君子人格思想〉;《大連海事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7권 제1기, 2008. 2  
 張科楊〈《論語》君子觀探析〉;《西南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제7권 제1기, 2009. 2  
 이경무〈君子와 공자의 이상적 인간상〉;《동서철학연구》제54호, 2009. 12  
 程碧英〈《論語》“君子”詞義辨析〉;《中華文化論壇》2010년 제1기  
 常佩雨 金小娟〈《論語》中的君子人格內涵探析〉;《船山學刊》2010년 제3기

張 樂 〈“君子之道”之今鑑〉:《鄭州航空工業管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 제29권 제6기, 2010. 12

### 【中文提要】

人格境界是指人在道德品質方面所達到的程度。說一个人的品位高,就是指這个人的人格境界高尚。君子是孔子所追求的一种理想的人格境界。孔子對君子人格的界定是在与小人人格的對比之中產生的。孔子對君子的人格境界規定爲「仁者不憂, 智者不惑, 勇者不懼」。君子應當具有仁者愛人的情怀, 律己寬人的精神。君子應該是‘仁’的實踐者, 這是作爲君子的必要條件。君子作爲智者, 不僅要有淵博宏富的學問, 更要有嚴謹求實的學風。君子應當具有尚義重行的勇敢, 堅強進取的毅力。見義勇爲是君子之勇的基本要求。智勇是构成君子人格的兩個標準, 君子必仁, 而仁者又需智勇双全。智勇是實現仁的有效途徑, 見到崇高的道德就要運用聰明才智去學習, 認爲正義的事就要大胆地去追求, 這樣才能接近‘仁’的境界, 才能成就君子人格。

### 【主題語】

《論語》, 君子, 人格境界, 仁, 知, 勇

투고일: 2011. 7. 13 / 심사일: 2011. 7. 20~8. 5 / 게재확정일: 2011. 8. 10